

## 시키보의 특수 직물 “아제쿠” - 2005년부터 멜텍스에서 생산

시키보가 개발한 특수 직물 “아제쿠”가 잘 팔리고 있어, 2005년 춘하절용부터는 인도네시아의 방직·편성·가공 자회사인 멜텍스가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도 판매량은 셔츠감으로 50만m에 달하였다. 일본에서는 고객의 소로트 주문을 QR(Quick Response)로 납품하고 있으며, 니트감의 “아제쿠” 등과 같은 차별화 소재의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제쿠”는 시키보가 도레(東レ)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수 직물로서, 체온, 실내외 온도차와 관계없이 상쾌한 기분을 체감할 수 있는 신쾌적(新快適)을 강조한 셔츠감 직물이다. 특수 세라믹 복합 폴리에스터 “알픽스”와 면을 복합한 소재이며, 일본 고대 창고 건물의 하나로서 통풍이 잘되는 아제쿠라(校倉) 구조를 응용하여, 혼방률이나 변수가 다른 방적사를 최적 배치하여, 중횡으로 굵기가 다른 실의 배열로 생긴 입체적인 간극(間隙)이 생겨 직물에 통풍이 잘 되는 미묘한 입체구조를 만든 특수 직물이다.

멜텍스에서는 “아제쿠”의 자매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공 폴리에스터와 마이크로파이버(micro-fiber)를 교직한 천 “에레미아”도 연간 50만m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멜텍스에서 생산하는 “아제쿠”, “에레미아”도 커다란 양판점의 셔츠용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말에 개최된 “저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에서도 “아제쿠”는 많은 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